

**지는 낙엽들**

1.22 - 3.7 아랍에미레이트, 더써드라인갤러리 www.thethirdline.com  
 골나즈 파피(Golnaz Fathi)의 회화는 이란의 고대 서사시 샤흐나메(Shahnamah)를 기반으로 출발한다. 이란의 전통 서예로 쓰여진 서사시는 파피(Fathi)의 회화작업에서 동시대적으로 재 해석 되는데 이는 비단 시각적인 재해석에 머무르는 것이아닌 그 내면 세계에 대한 표현적 방출이 가감없이 드러난다.

샤흐나메(Shah-nama)라고도 불리우며 '왕들의 책'이라는 의미를 지닌 본 서사시집은 이란의 시인 페르도우시(Ferdowsi)가 지은 기원전 977년부터 기원 후 1010년도까지 이란의 왕들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자존감과 동시에 그 시대의 사회상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쟁의 일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동시대 이란과 중동의 현재와 많이 닮아 있다는 부분이 작가의 재해석 초점이 멈춘다.



Untitled 4, 2012, Mixed Media on Canvas, 150x20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e Third Line gallery

**자동 조립 액션**

1.14 - 3.14 아랍에미레이트, 카르본12 www.carbon12dubai.com



Untitled Youtube stills, 10 C-prints, Courtesy of the artist and Carbon 12 Dubai

자기성찰과 자기주장 이 두가지 요소는 본 전시의 주인공인 아나히타 라즈미(Anahita Razmi)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매우 날카로운 미술의 역사적 성찰과 이론적인 전개를 문화적 유산과 상징들을 차용하여 동시대적인 알레고리로 재해석하면서 작가적 비판의 시각을 드러낸다. 미술이 가지는 유희적인 아이디어와는 상반되게 그 곁을 단단히 싸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풍자 또한 보여준다.



The Cloud, The Fisherman and The Mutating Cities, 2012, W100x D40x H60cm, Stainless Steel and Stand, Edition of 8, Courtesy of the artist and Ayyam Gallery London

**아얌갤러리 런던 개관전, 나딤 카람 : 구름을 쏘다**

1.24 - 3.9 런던, 아얌갤러리 www.ayyamgallery.com

시리아, 레바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총 4곳의 갤러리 분점을 두고 있는 아얌갤러리가 사우디 제다와 영국 런던으로 그 영역을 확장한다. 런던

의 오페라갤러리 및 저명한 세컨더리갤러리들이 밀집한 뉴 본드 스트리트(New Bond Street)에 지난 1월 24일 새로 오픈하였고 개관전으로 나딤 카람(Nadim Karam)의 두바이 시티 스케이프(Cityscape)의 습작 <The Cloud> 조각 작품 시리즈를 선보인다.

**중동 2월 전시**

- 문자의 힘 2012.11.20 - 2.21 요르단, 다랏알퍼넌
- 시간의 여정, 1.13 - 2. 28, 아랍에미레이트, 아얌갤러리, DIFC
- 후세인 마디 1.15 - 2.15 바레인, 알바레흐갤러리
- 보야, 보야, 보야 1.15 - 2.22 아랍에미레이트, 아얌갤러리, 알퀴오스
- 아트팔 아흐다스 1.16 - 2.2 레바논, 더러닝호스켄템포러리 아트스페이스

**페이퍼**

2.4 - 3.13

아랍에미레이트, XVA갤러리 www.xvagallery.com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왈리드 시티(Walid Siti), 임란 찬나(Imran Channa), 모흐센 아흐마드반드(Mohsen Ahmadvand) 그리고 텡자니 브하르드와지(Debjani Bhardwaj). 이렇게 유럽 및 중동 그리고 남아시아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중견작가들의 페이퍼를 미디어으로 혹은 주제로 한 작업들을 이색적으로 소개한다.



Mohsen Ahmadvand, Untitled, 2012, Courtesy of the artist and XVA Gallery

**지금은 여기고 다음에 어딘가로**

2.7 - 4.6 레바논, 베이루트아트센터 www.beirutartcenter.org



Still from The Anabasis of May and Fusako Shigenobu, Masao Adachi, and 27 Years Without Images, 2011, Courtesy of the artist and Beirut Art Centre

에릭 보들레르(Eric Baudelaire)의 개인전은 '포스트-68시대(Post-68 era)'라 불리우는 1960년대 후반의 급진적인 사회상을 주제로한 비디오, 사진, 드로잉 작업들이 선보인다. 특히, 당시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캠프에 주둔한 일본의 적군(JRA)의 창단리더인 푸사코 시제노부(Fusako Shigenobu)와 그의 딸 메이 시제노부(May Shigenobu) 그리고 팔레스타인 게릴라 전투군의 삶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릴라 전투군의 삶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 휴게트 칼랜드 1.16 - 2.24 아랍에미레이트, 갤러리자나누르베이지
- 수룩 1.22 - 3. 7 아랍에미레이트, 더써드라인갤러리
- 존재론 1.26 - 2.26 바레인, 알리외크아트스페이스
- 날아라 새 날아라 2.7 - 4.6 레바논, 베이루트아트센터
- 초석 2.7 - 4.6 레바논, 베이루트아트센터